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특기사](#)
  - ◇ 수익률 커브 역전이 잘못된 경보일 수 있는 이유
  - ◇ (초점)-연준 긴축 중단에 쏠 잠재적 금리 인하국 늘어
  - ◇ (초점)-이번 주말부터 줄줄이 대기한 외인 배당 수급..환시 '경계령'
  - ◇ (초점)-처음 공개된 외환시장 개입 결과는 소폭 순매도..해석과 시장 영향력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들이 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 (로이터/마이크 블레이크 기사)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2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35.1	-0.4%	-1.7%	-4.1%	유로	1.1217	-0.8%	-2.2%	-4.4%
100엔 대비	1,024.7	0.8%	-0.9%	-6.9%	엔	110.84	-0.8%	-1.2%	2.8%
유로 대비	1,274.4	0.8%	0.2%	0.2%	위안	6.7398	-0.3%	2.0%	-5.3%
위안 대비	169.24	-0.2%	-4.4%	1.3%	해외주식				
한국주식					최종				
코스피	2,140.67	-2.1%	4.9%	-17.3%	다우존스	25,928.68	1.7%	11.2%	-5.6%
코스닥	729.31	-2.0%	7.9%	-15.4%	나스닥	7,729.321	1.1%	16.5%	-3.9%
국내시장금리					S&P500				
국고채 3Y	1.690%	-11.0bp	-12.7bp	-31.8bp	MSCI APxJP	529.22	-0.1%	10.9%	-16.2%
국고채 5Y	1.708%	-11.9bp	-17.6bp	-45.9bp	미국시장금리				
국고채10Y	1.833%	-10.1bp	-11.5bp	-52.1bp	미국채 2Y	2.266%	-5.3bp	-23.2bp	60.7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유가(WTI)	60.14	1.9%	32.4%	-24.8%	미국채 10Y	2.407%	-3.0bp	-28.4bp	28.0bp
금(현물)	1,291.90	-1.6%	0.7%	-1.5%	CDS프리미엄				
TR상품지수	2,359.79	-0.2%	-0.5%	0.0%	한국 5Y	33.30	2.90	-4.77	-13.74
					일본 5Y	19.50	-2.00	-2.29	-3.34
					중국 5Y	44.19	-2.09	-22.28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4월 1일(월)>

- 산업부, 3월 수출입동향(09:00)
- IHS 마르킷, 한국 3월 제조업 PMI(09:30)
- 기재부,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10:00)
- 한은 총재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 <2일(화)>

-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10:00)
- 기재부, 국채시장 발전포럼

### <3일(수)>

- 한은, 3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경제활력대책회의
- ADB, 2019년 아시아경제전망(ADO, Asian Development Outlook) 발표
- 통계청, 2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기재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 결과(14:30)
- 기재부, 흥남기 부총리, S&P 연례협의단 면담 결과(16:00)

### <4일(목)>

- 한은, 2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4:30)

### <5일(금)>

- 특이 일정 없음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4월 1일(월)>

- 일본, 3월 외환보유고 (1~5일, 08:50)
- 일본, 1분기 단간 대형 제조업지수 (08:50)
- 일본, 3월 닛케이 제조업 PMI (09:30)
- 중국,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10:45)
- 유로존, 3월 마르킷 제조업 PMI 확정치 (17:00)
-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NSA (18:00)
- 미국, 2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3월 마르킷 제조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1월 기업재고·2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3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지수 (23:00)

### <2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12:30)
- 유로존, 2월 생산자 물가·2월 실업률 (18:00)
- 미국, 2월 내구재주문 (21:30)
- 미국, 3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 지수 (22:45)

### <3일(수)>

- 미국, 3월 전미 차량 판매 (04:30)
- 일본, 3월 서비스업 PMI (09:30)
- 중국,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3월 마르킷 서비스업 PMI 확정치 (17:00)
- 유로존, 2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3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3월 마르킷 서비스업 PMI 확정치 (22:45)

### <4일(목)>

- 미국, 3월 챌린저해고건수 (2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대만 휴장

### <5일(금)>

- 일본, 2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2월 경기동행지수·경기선행지수 (14:00)
- 미국, 3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실업률 (21:30)
- 중국·홍콩·대만 휴장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외환시장>

-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발표될 대내외 경제지표 내용에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시장 불안은 여전하지만 미국 금리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은 극도의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는 벗어났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대내외 핵심 경제지표 내용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특히 수출 부진 전망과 삼성전자 실적 악화는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경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 최근 시장참가자들은 달러/원 환율 레인지를 높여잡았다. 달러/원 환율의 1120 원 중반대 지지력이 확인된 이후부터 박스권 상단을 1140 원에서 1150 원대까지 조심스레 상향 조정하고 있다.
-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에 대한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작게 반영됐다는 우려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상향 이탈 기회를 엿보고 있는 달러/원의 반전에는 개선된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 상승 모멘텀이 장착된 달러/원의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때다.
- 이번 주 예상 환율 범위는 1125-1145 원이다.

###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대내외 실물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지난주 채권금리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작용하며 급락했다. 5년물 이하 국고채 금리가 모두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등 연초보다 더 뜨거운 랠리를 펼쳤다.
- 새로운 분기를 맞는 이번 주에는 과연 역캐리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놓고 운용역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은행이 시장의 기대대로 움직여줄지, 움직인다 해도 얼마나 빨리 움직일 지가 관건이다.
- 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빈틈을 보여줄지가 주초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가 기존의 스탠스를 고수하며 시장과 평행선을 달릴 경우 시

장은 대내외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호흡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 1일 발표되는 3월 수출입 동향과 2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동향도 주목할 만하다.
- 주요국 경제지표도 관심이다. 1일(현지시간) 발표되는 G2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5일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3월 고용지표 등을 보며 시장의 금리 인하 프라이싱 정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주초 30년물 입찰도 주목된다.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면서 장기투자기관이 다소 소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가뜰이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고채전문딜러(PD)들의 입찰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찰을 전후로 헤지가 늘며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수익률 커브 역전이 잘못된 경보일 수 있는 이유

(로이터) -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 수익률 커브 역전이 일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침착할 것을 촉구하는 이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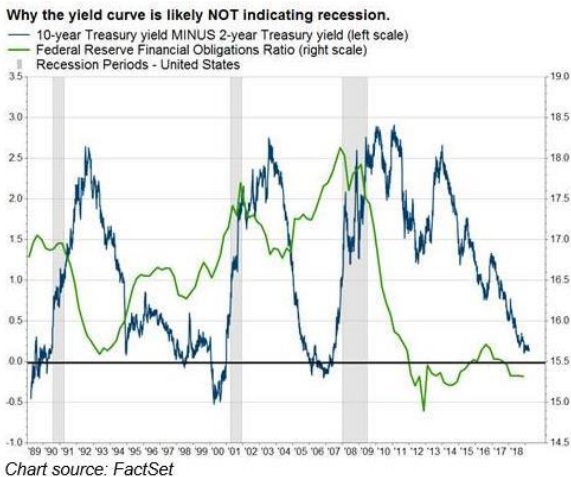
아메리프라이즈의 러셀 프라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후자다. 그는 리서치노트에서 "커브 자체가 침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전 기록과 최근(커브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비자 부채 부담이 낮기 때문에 침체 리스크가 여전히 낮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래 아메리프라이즈의 차트에서도 보여지듯 수익률 커브 역전에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부채가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 침체는 단기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자들이 디레버리징을 추구하면서 지출 감소로 이어질 때 초래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사뭇 다르다. 미국 소비자들의 재량소득 대비 부채율은 2016년 3분기 이후 하락하고 있다.

프라이스는 "역사적으로 수익률 커브 역전 후 경기 하강을 촉진했던 근본적인 경제적 불균형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뒤늦게 이런 포인트가 입증될 때까지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연준 긴축 중단에 쏠 잠재적 금리 인하국 늘어**

서울/홍콩 (로이터) - 세계 경기 둔화와 갑작스러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정책 중단으로 중앙은행들이 정책 기조를 바꿀 것으로 시장이 추측하며 아시아에서의 금리 인하 전망은 '가능성 있다'에서 '가능하다'로 바뀌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7일 기준금리(OCR)를 사상 최저치인 1.75%로 동결하는 한편, 다음 금리 움직임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기존의 동결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머니마켓 투자자들은 올해 호주의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높게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신흥시장 혼란에서 자국 통화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수차례 인상한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3월 일본은행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의 정책입안자들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추가 부양책을 논의했다.

잠재적 금리 인하국 목록에 합류한 예기치 못한 나라는 한국이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빠르게 평평해지며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이 언급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 경제 부진을 신호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급준비율 인하가 주요 통화정책 완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기준금리 인하도 전망하고 있다.

ANZ 이코노미스트들은 수요일 분기별 노트에서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변화가 연준의 긴축 사이클 중단과 결합되며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시아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완화모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역수지가 적자인 국가들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였고, 일본은행은 이례적 경기부양 정책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기조를 바꾼 것은 연준 만이 아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은 중국 경제 성장을 예상보다 크게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목표치를 하회하거나 목표 하단에 머물러 있다.

◆ 평평해지는 국채 수익률

미국의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지며 세계 성장 전망까지 어두워지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금요일 2007년 중순 이후 처음으로 3개월물 수익률 밑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수익률 역전은 지난 50년간 모든 미국 경제 침체에 앞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고, 낮은 수익률은 세계적인 문제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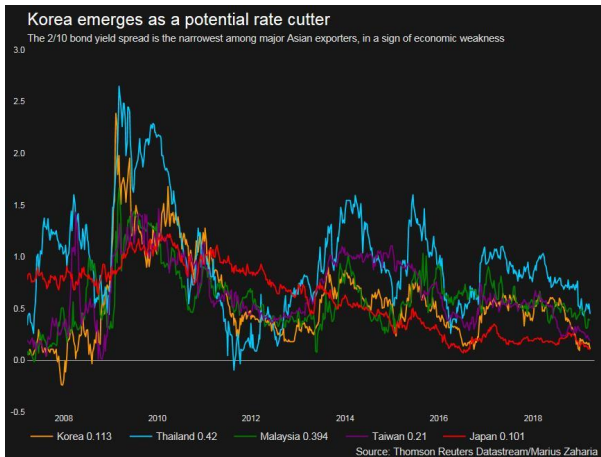
때문에 이번 역전은 경기 침체의 징조가 아닐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이에 주목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월요일 홍콩 컨퍼런스에서 수익률 곡선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닐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각으로 아시아를 본다면 잠재적인 금리 인하국들은 늘고 있다.

이번주 한국의 2/10 년물 수익률 곡선은 수년째 팬케이크 모양을 하고 있는 일본의 수익률 곡선보다도 한때시 더 평평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세계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주택시장 중 하나였던 한국의 주택 시장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후 활기를 잃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 미국 수준으로 이뤄지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며 한국은행은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공동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변할 가능성 크다"며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내년으로 전망하던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수정중이다"라고 밝혔다.

### (초점)-이번 주말부터 줄줄이 대기한 외인 배당 수급.. 환시 '경계령'

서울 (로이터) 박예나 · 박윤아 기자 -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시즌이 다가왔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주요 기업의 배당 지급이 시작되는 만큼 달러/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짙고, 국내 수출이 부진한 현 시점에서 외인 배당금 역송금 수급에 대한 경계는 커지고 있다.

로이터가 주요 국내 상장기업들의 외인 배당 규모와 지급 시기를 조사한 결과, 가장 먼저 하나금융지주가 29일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외인 주주들의 몫은 약 3100 억원이다. 이에 관련 역송금 수요가 이르면 오늘 시장에 등장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배당금 지급은 4월 중순부터 줄줄이 이뤄진다. 4월 11일 LG 화학, 12일 신한금융지주가 배당금을 지급한다. 추정되는 외인 배당 규모는 LG 화학이 약 1900 억원, 신한금융지주는 약 5100 억원 규모다.

이후 15일 포스코 약 2400 억원, 기아자동차 약 1500 억원, 16일 LG 약 1200 억원, 18일 SK 이노베이션 2300 억원 등의 외인 배당이 각각 예상된다. 이어 22일에는 현대모비스가 약 1800 억원, 23일 SK 텔레콤 약 3000 억원, 26일 케이티 약 1400 억원이 외인 배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아직 정확한 배당금 지급 시기를 밝히지 않은 기업은 주주총회 이후 1개월 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중순 경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인 배당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외인 배당 규모는 약 1조 4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마친 점을 고려하면 내달 20일을 전후해 환시 수급 재료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2일 주총을 가진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화재의 외인 배당 역시 4월 중순 경 수급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의 외인 배당 규모 추정치는 SK 하이닉스 약 5300 억원, 현대자동차 약 4400 억원, 삼성화재 약 2800 억원이다.

또한 4월말에는 KB 금융 약 5500 억원, 케이티앤지 약 2800 억원의 외인 배당 지급이 예상된다.

▲ 올해는 다를 수도..

주요 외인 기업들의 배당 규모가 약 6 조원에 이르면서 이론상으로는 50 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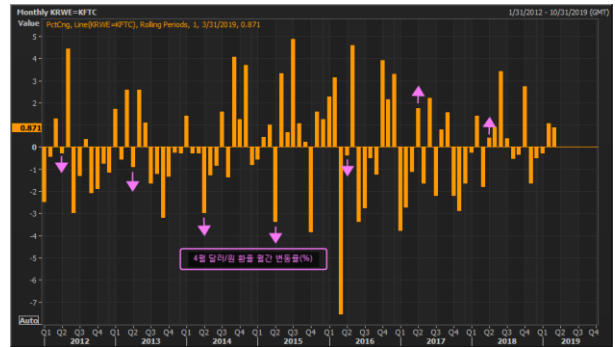
물론 배당 수급이 달러/원 환율 상승을 이끌기 보다는 하방경직성을 강화하거나 일시적 재료로 소멸할 때도 많았다. 시장참가자들이 선제적으로 달러를 매수하기도 하고, 이같은 수급 요인으로 환율이 반등할 때 매물을 처리하는 수출업체도 있는 만큼 배당금 재료가 환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4월 중 달러/원 환율이 월간 기준으로 하락할 때도 있었다. 이같은 수급 영향이 제한적으로만 작용하려면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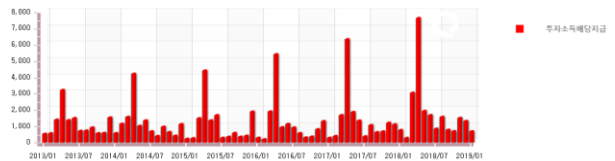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달러/원 환율은 세계 경기둔화 우려, 무역협상 및 블랙시트 불확실성 등에 박스권 상황이 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수출 부진에 따른 수급 변화가 거론되는 점은 예년과 달리 외인 배당금 역송금 영향력을 다시 가능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까지 석 달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여건 아래 외인 배당 역송금 수급에 대한 경계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투자소득 배당지급은 약 77 억달러로 집계됐는데 2월 무역흑자 규모는 31 억달러였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의 배당 지급이 4월에 집중된 가운데 외국인들 배당 역송금 수요로 인해 환시 수급여건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면서 "작년에도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환율에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는 수출 부진 속 이런 수급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초점)-처음 공개된 외환시장 개입 결과는 소폭 순매도..해석과 시장 영향력은?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한국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국은행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외환개입 내역에 따르면 1.87 억달러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작년 5월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 안정적이었던 환율

지난해 달러/원 현물 일평균 거래량이 약 80 억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개된 개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동안 달러/원 환율 변동성은 제한됐다. 지난해 상하반기말 달러/원 환율 레벨은 1115 원선으로 동일하고, 이 기간 동안 환율 변동폭은 40 원 수준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달러/원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 공개된 개입 규모가 결과가 시장 안정성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장참가자들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서도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가 당국

의 비대칭적 개입 가능성을 줄였을 것이라고 추정해왔다. 또한 한국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이 대외 역풍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를 막아줬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서울환시는 공급 우위 약화 속 수급 쓸림이 희석됐고, 탄탄한 외환건전성 등에 자체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 ▲ 시장 영향은?

이날 공개된 개입 내역 결과 자체가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개된 정보는 정부가 개입한 총매수액, 총매도액을 각각 발표한 게 아닌 순매입 내역을 공개한 만큼 당국 개입 행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외환당국은 개입내역 공개에 따른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참가자는 이번 공개된 개입 결과에 대해 생각했던 것 보다 수치가 더 작다면서 "당국이 총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서도 달러/원 일간 변동폭이 작년 5원 수준에서 4원으로 더욱 줄어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시장참가자들의 외환당국 스탠스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낮아진 상태다.

다른 시장참가자는 "환율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당국의 개입이나 대응이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원화가 변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는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매 분기마다 불거졌던 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서는 다소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그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였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 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미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있다.

이에 대해 위의 한은 관계자는 "개입 규모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은 없다"면서 "당국이 시장에 환율 조작을 위해 개입한 적은 없고, 관찰국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개입 규모도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는 그런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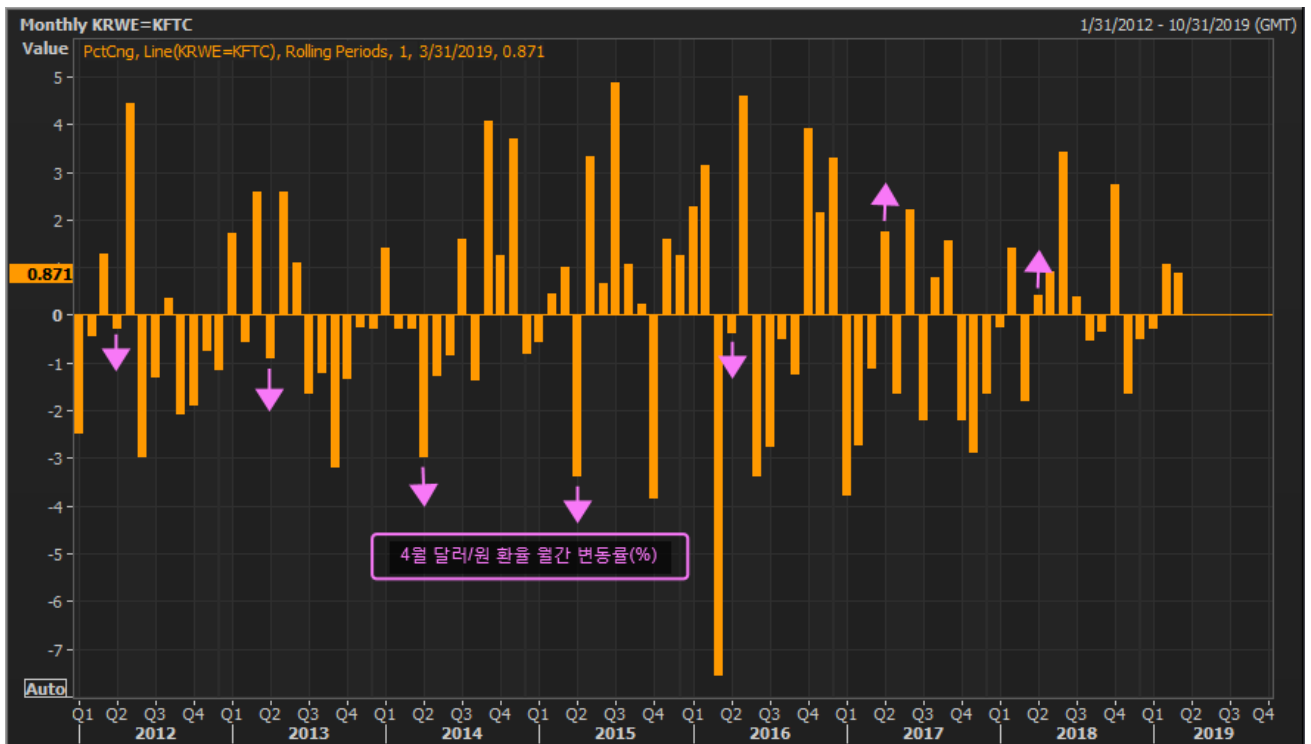
한편 다음 외환당국의 개입 공개 일정은 9월말이다. 이 때는 올해 상반기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말에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취재 노주리 기자; 편집 박윤아 기자)

#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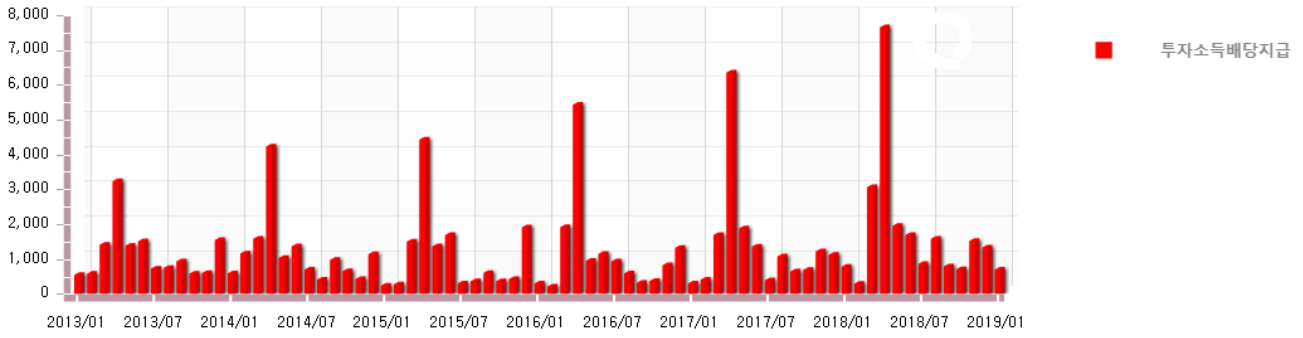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Why the yield curve is likely NOT indicating recession.**



Chart source: FactSet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Korea emerges as a potential rate cutter

The 2/10 bond yield spread is the narrowest among major Asian exporters, in a sign of economic weaknes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